

석주 이상룡 망명 시의 몇몇 지리 고증

이승수* · 崔宸瑀** · 강동우***

1. 서언
2. 망명 시 개관, 편찬 오류 변정
3. 석주의 망명 행적과 장소 고증
 - 1) 기착지의 추위와 희망, 橫道川
 - 2) 정착의 시도, 민족운동의 출발, 永春院
 - 3) 고대사의 회고와 탄식, 輝巴城
 - 4) 형제와의 단란한 여러 날, 密什哈
 - 5) 체념과 망우의 낚시질, 呼蘭河
4. 결어

<국문초록>

이 글은 석주 이상룡(1858~1932)의 망명 시를 대상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몇몇 지리를 고증한 것이다. 석주는 1911년 1월 경상북도 안동을 떠나 망명길에 올랐고, 1932년 5월 12일 중국 길림성 舒蘭의 한 농촌에서 삶을 마쳤다. 이 기간 그는 조국의 독립과 이주 한인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漢詩文을 남겼다. 2장에서는 망명 시를 개관하였다. 편집 오류를 변정하여 망명 시를 222제 299수로 확정했다. 3~7장에서는 횡도천(橫道川), 영춘원(永春院), 휘파성(輝巴城), 밀십합(密什哈), 호란하(呼蘭河) 다섯 지명을 중심으로 그 일대의 지리와 위치를 고증하고, 아울러 시에 보이는 석주의 행적과 심경을 살펴보았다. 이 작업은 다음 몇 가지 차원에서 의의

* 주저자,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woohabin@hanmail.net)

** 공동저자,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ccchoesinu@naver.com)

*** 교신저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gangding@daum.net)

를 지닌다. 첫째, 한 역사 인물의 일생 일부를 세밀하고 입체적으로 재구하였다. 둘째, 1910년대에서 1930년대 초 사이 한국문학의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의 일부를 해명하여 문학사 서술의 시야를 확장했다. 셋째, 같은 시기 만주 지역 독립운동의 이면 일부를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중국 동북 지역의 몇몇 지역을 한국문학의 장소이자 한국사의 현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석주는 20여 년 자주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기록에 남은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나머지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 주요어: 이상룡(李相龍), 망명 시, 횡도천(橫道川), 지리 고증, 석주유고(石洲遺稿)

1. 서언

이 글은 석주 이상룡(1858~1932)의 망명 시를 대상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몇몇 지리를 고증하여, 석주의 행적 재구와 작품 해석을 위한 토대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석주는 1911년 1월 안동 임청각을 떠나 27일 압록강을 건너 안동(安東, 현 丹東)에 도착했다. 안동에서 안동으로 간 셈이다. 1932년 5월 12일 길림성 舒蘭의 한 농촌에서 삶을 마쳤다. 이 기간 그는 요녕성과 길림성 곳곳을 전전했다. 그 사이 1920년 군사통일회 일로 북경을, 1925년에는 초대 국무령에 취임하기 위해 상해를 다녀왔다. 이 망명 생활은 만 20년이 넘는다. 죽은 뒤에도 그의 망명은 1990년 하얼빈에서 유해가 봉환되기까지 60년 가까이 이어진다. 생사를 이어가며 그가 망명지에서 보낸 세월은 79년이나 된다. 그는 어디를 다녔고, 누구를 만났으며, 무슨 일을 도모했던 것일까? 이 글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몇몇 답변을 시도하고자 한다.

글만 보면 그는 전통 한문 지식인이었다. 망명 생활 중 적지 않은 시문을 남겼는데, 모두 한문이다. 그의 시문은 망명 생활 내내 시종했던 아들 瀟衡(1875~1942)에 의해 수습되었고, 전통 문집 형태로 간행되었다. 여기에 망명 시절에 지은 시만 222제 299수나 실려 있다.¹⁾ 문집은 2008년 번역 간행되어

연구자는 물론 일반 독자의 이용이 수월해졌다. 하지만 남은 문제가 적지 않다. 석주의 망명 20년은 청산리전투나 상해임시정부 등과 직간접적으로 이어진 독립운동의 연속이었고, 많은 시에는 당시의 정황과 심경이 반영되어 있다. 그의 시는 詩史인 셈이다. 한편 시에는 석주가 이 기간 다닌 매우 많은 장소의 지명이 들어있다. 이곳들은 다 역사의 현장이자 문학의 장소이니, 이 시들은 시로 쓴 地誌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석주의 한시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의 문학에 지나지 않는다.

석주에 관한 기존 연구는 그의 정치·사회사상이나 독립운동과 관련한 현실인식과 대응 양상에 치우쳐 있고, 소략하지만 문학과 관련한 논의도 석주의 작품 분석과 그의 세계관이나 인식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²⁾ 특히 석주 망명 시에 나타난 지명과 현장 검증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석주의 망명 시에 보이는 몇몇 지명에 주목하여, 그 장소와 지리에 대한 고증을 시도할 것이다. 그 장소의 위치는 어디이고 오늘의 지명은 무엇이며, 그는 왜 그곳을 지나거나 거기서 머뭇거리며 시를 지었는가? 시를 둘러싼 역사 상황은 어떠했고, 시어 사이에 감춰진 마음은 무엇이었나? 아주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의외로 풀기 어려운 사안들이 적지 않다. 오늘의 지명과 위치, 그리고 그곳을 언급한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면 시 해독은 제자리걸음에 그치게 된다. 혹 지명과 위치를 확인했어도, 작시의 맥락과 내포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해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우선 해명이 가능한 다섯 개의 지명을 주목하였다. 지리 고증에 앞서 시의 편집 오류에 대한 변정을 시도한다.

이 글로 HISTORY의 그물에는 걸리지 않는 여러 작은 역사가 드러날 것이

-
- 1) 안동독립운동기념관, 『국역 석주유고』(2책), 경인문화사, 2008. 인용 시문의 번역은 이 책에 의거하되, 이 글의 논조와 필자의 방식에 따라 고친 것이다.
 - 2) 석주 이상룡 문학에 관한 연구 중에서, 특히 한시와 관련한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신소운, 「석주 이상룡 한시에 나타난 사물인식의 양상과 그 의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김윤규, 「20세기 초 한시(漢詩)의 문학사적 성격 시론(試論) -석주시(石洲詩)의 경우를 중심으로」, 『동양예학』 17, 동양예학회, 2007; 신두환,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의 한시(漢詩) 연구(研究)」, 『한문학논집』 33, 근역한문학회, 2011; 호광수, 「석주 이상룡의 망명 한시 텍스트와 상황성」, 『중국인문과학』 31, 중국인문학회, 2005; 호광수, 「석주 한시 <만주기사(滿洲紀事)>와 <사고향(思故鄉)>의 텍스트성 연구」, 『중국인문과학』 33, 중국인문학회, 2006.

다. 이를 통해 석주와 그의 시대, 그리고 한국사의 소중한 현장으로서 만주에 대한 이해가 한 치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2. 망명 시 개관, 편차 오류 변정

석주에 대한 연구는 1973년 고려대학교에서 『石洲遺橋』가 영인본으로 간행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 빠진 유고들을 모아서 1996년 석주 이상룡기념사업회에서 『石洲遺橋後集』을 발간하였다. 이 글에서 텍스트로 삼고 있는 『국역석주유고』는 안동독립운동기념관에서 『石洲遺橋』와 『石洲遺橋後集』을 국역하여 상하 2권으로 편집 간행한 것이다.³⁾ 『석주유고』의 권 1, 2에는 시가 연대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외형상 망명 시의 범주에 드는 작품은 辛亥年(1911)에 고향을 떠나면서 지은 7언 율시 「去國吟」부터 1932년 타계 직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5언 율시 「誠孫兒」까지 211제 283수이다. 여기에 1926년에 지은 辭 「和陶淵明歸去來辭」를 시에 포함시키면, 212제 284수가 된다. 이 시들은 창작 시기순으로 편집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들른 장소의 지명과 만난 사람의 인명, 때로는 정황을 지시하는 사건명이 기입되어 있어, 석주의 시공간 이동 행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런데 편집 질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시들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권 1에서 경술년(1910) 표시 항목에 들어있는 「詠雪」에서 「李君起馥, 以鳳兮詩四章見寄, 辭旨慨切, 有足感人, 此以謝」에 이르는 10제 15수의 시가 그것이다.

「詠雪」은 말 그대로 눈을 읊은, 小春(음력 10월)에 정강이까지 쌓인 눈으로 나루가 덮이고 다리도 끊어져 빗쟁이가 찾아오기 어렵다는 내용의 희작이다.⁴⁾ 그런데 내용도 그렇거니와 안동 지역이 음력 10월에 대설이 내리기 어려운 기후 조건으로 보아, 이 시는 망명지에서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다음에 놓인 「만량하, 우박 섞인 가을비에 속내를 풀어내다, 萬兩河,

3) 김순석, 「석주 이상룡의 현실인식과 대응방략의 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8. 41쪽 참고. 이하 『국역석주유고』는 『석주유고』로 칭한다.

4) 「詠雪」, “小春天氣雪花新, 銀海迷茫不見津. 山谿沒膝河橋斷, 可喜難來索債人.”

秋雨滯電, 述懷」는 편집 오류가 분명하다. 만량하는 길림성 樺甸市 동남부의 樺南鄉과 紅石砬子鎮 경내에 있는 남→북으로 흐르는 물줄기이기 때문이다. 석주는 1916년경부터 10년 이상 樺甸에 살았으니, 만량하의 등장은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석주유고』에 실린 「上元夜」(1922)는 “만량하 물가의 한 초당, 임옹 예서 성명을 숨기고 사네. 萬兩河頭一草堂, 林翁於此姓名藏.” 구절로 시작된다.

「영안으로 가는 허손교를 전송하다 送許孫嬌之寧安」 3수도 의심의 여지 없이 편집 오류이다. 이 시에는 당시 흑룡강성 寧安에 살던 허국(?~1971)에게 출가하는 손녀를 보내는 정황이 담겨 있다. 산 넘고 물 건너 수천 리 이국 땅에 와서 앞으로 다시 못 볼 먼 곳으로 다시 보내는 애절한 마음이 언어 위로 넘친다.⁵⁾ 영안(寧安)은 목단강시 부속 도시로, 1920년대 이주 조선인의 중심지였다.⁶⁾ 허손교(許孫嬌)는 ‘허씨 집안에 출가하는 손녀’라는 뜻이다. 이 시는 1923년 조에 들어가야 한다. 이준형은 부친의 사연을 기록한 「유사(遺事)」에서 “1923년 자식의 혼사로 영안에 다녀왔다.”라고 했고, 석주도 같은 해 허혁(許赫, 1851~1939)에게 보낸 편지에서 두 집안이 사돈 맺은 인연을 내세우며 “손녀(孫嬌)를 당초에 데려올 적엔 이처럼 멀리 떨어진 곳인 줄 몰랐고, … 지금 막 보냈습니다.”⁷⁾라고 썼다. 당시 석주 일가는 지금의 길림성 길림시 반석현(磐石縣) 호란진(呼蘭鎮)에 살고 있었다. 전자지도 위에 직선으로 거리를 재면 호란에서 영안까지는 280km쯤 되는데, 실제 이동 거리는 그 두 배가 넘었을 것이다.

이 손녀는 이름도 나이도 전해지지 않는다. 1950년대 초에 간행된 『鐵城李氏派譜』⁸⁾에는 손자 병화(炳華, 1906~1952) 위로 세 누이가 있었는데, 이 손녀는 바로 윗누이였다. 병화보다 한두 살 많았다면 1904년이나 1905년생이었을 것이다. 신랑은 왕산(旺山) 허위(許蕙, 1855~1908)의 4남 허국(1899~1955)

5) 세 수 중 첫 수만 소개한다. “溫如良玉婉如花, 在膝三年孝順多. 今朝忽值臨門送, 情淚汪然溢混河.”

6) 서평일, 「단에 윤세복과 독립운동」, 『경기사학』 7, 경기사학회, 2003, 170~177쪽.

7) 권 3, 「答許性山」, (역주 상, 321, 2쪽)

8) 이 파보의 남녀 형제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임청각 종손 이창수 선생의 교시로 알게 되었다. 이 파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했다고 하는데, 장서각에서는 아직 검색되지 않는다.

이었다. 허위의 네 아들은 1915년 북만주로 망명하였으며, 이 시기 영안에 살았던 것인데 그 장소는 철령하 일대로 추정된다.⁹⁾ 손녀 부부는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했고, 1931년과 1934년에 각각 딸 클라라와 부르코프를 낳았다.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였고, 손녀는 1943년 카자흐스탄에서 병사한다. 클라라와 부르코프 남매는 모스크바에 살았는데, 클라라는 고등학교의 수학교사였고 부르코프는 농학박사로 대학에 재직했다고 한다.¹⁰⁾ 나이도 이름도 목소리도 남기지 않은 한 여인의 일생이 굴곡진 우리의 근현대사를 무거운 침묵으로 증언한다.¹¹⁾

「裊天澤居壁聯」은 오와 연합하여 위를 막은 제갈량의 방략, 한을 도와 초를 멸하게 한 장량의 경륜을 읊은 4·7언 시이다. 중국과 연합하여 일본을 쳐야 한다는 전략의 내용도 그렇거니와,¹²⁾ 배천택(1892~1942)¹³⁾이 대구 사람임을 고려하면 또한 망명지에서 지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기복 군이 ‘鳳兮’ 시 네 장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강개하여 사람을 감동시킴이 있어서 이

9) 허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10, 84쪽. “(1922년) 가족도 버리고 교통은 불편한데, 발끝 가는 대로 걸어서 도망들을 쳤다. 얼마 후 가 있는 곳이 정해지면 연락을 취하여 가족들을 몰래 오라 했다. 우리도 왕산택 허학 재종숙이 영안현 철령하로 오라 하여 또 그리로 이사갔다.” 철령하(鐵嶺河)는 지금의 목단강시 동북쪽 교외의 지명이다.

10) 이상은 병화의 6남 李帆曾(1944~) 선생께 들은 것이다. 선생은 2005년 모스크바에 가서 사촌 형제인 남매를 만났는데, 남매 모두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였다고 한다. 이후 남매는 모두 세상을 떠났으며, 그 후손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이다.

11) 이와 관련하여 밝혀줄 것이 있다. 2006년 여러 언론사에서는 허국의 두 아들 허게오르기(당시 62세)와 허블라디슬라브(당시 55세)가 법무부의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 귀화 대상으로 초청된 사실을 보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를 전전한 형제의 이주 내력이 소개되었다. 『연합뉴스』, 「60년 만에 귀환한 許薦 선생 두 손자」, 2006. 7. 18. <https://v.daum.net/v/20060718173212502>, 검색일: 2025.6.15.). 2023년 7월에는 허블라디슬라브의 아들 허세르게이의 방한 소식이 몇 개 언론에 소개되었다. 『파이낸셜뉴스』, 「도움에 감사’...‘의병장’ 허위 선생 증손 허 세르게이씨 구미시 방문」, 2023. 7. 14. <https://www.fnnews.com/news/202307041134372227>, 검색일: 2025.6.15.) 이범중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허게오르기 형제는 허국의 후실 소생이라고 한다.

12) 「裊天澤居壁聯」. “聯吳拒魏, 諸葛亮安蜀方略. 佐漢滅楚, 張子房報韓經綸.”

13) 대구 출신. 대동청년단,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 正義府, 신한독립당 등 활동. 1937년 7월 일제의 침략으로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국방송국을 이용해 일본 본토에 대한 일본어 방송과 한국 본토에 대한 한국어 방송을 담당하였다. 조규태, 「1920년대 재북경 대구, 경북인의 국민당 활동」, 『대구사학』 100, 대구사학회, 2010.

시를 지어서 사례하는 바이다 李君起馥, 以鳳兮詩四章見寄, 辭旨慨切, 有足感人, 此以謝는 원시가 부기되어 있다. 원시에는 鳳을 찾아온 뱀새의 입장에서, 이역을 방황하는 신세, 법도 없는 무장투쟁가와 실천 없는 이론가에 대한 비판 등을 토설하고 있다. 답시에서 석주는 남산의 여우에 홀려 정신이 혼미한 한씨 집 자제로 한국의 처지를 비유하면서, 힘들어도 잘 준비하여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을 표출했다. 둘째 수의 “십 년의 풍상으로, 수염 머리 모두 희었다. 十載風霜, 鬚髮盡白.”는 구절로 보아, 1920년 전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자녀 양육의 세 가지 어려움을 읊은 「子女三難」, 매서운 북풍한설을 그린 「次尺西燈火韻」도 망명지에서의 정황이 뚜렷하다. 가을 국화를 읊은 「又次菊花韻」에서는 “보국 남아의 물력이 부족하니, 하늘이 만관 황금 비취 주신 것이리.”¹⁴⁾라고 하였는데, 망명 생활 내내 물력의 단핍을 호소한 정황에 부합된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10제 15수의 시는 망명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다시 분류해야 한다. 이를 더하면 석주의 망명 시는 모두 222제 299수가 되며,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논의해야 할 것이다.

3. 석주의 망명 행적과 장소 고증

1) 기착지의 추위와 희망, 橫道川

석주 일가는 1911년 1월 6일 안동을 떠나 12일 서울에 도착했다. 19일 경의선 열차로 서울에서 출발하여 이날 밤늦게 신의주에 도착했다. 27일 跋車를 빌려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 2월 1일 마차를 이용하여 안동(현 丹東)에서 출발했다. 小浦川 馮家店, 관전 남쪽 수십 리 閻家店, 小河口 德興店, 山陂站, 太平城, 沙田站에서 유숙하였으며, 雲門山을 넘어 7일 횡도천에 도착했다. 망명 초기 여정은 석주 자신이 「西徙錄」으로 비교적 소상하게 정리해 두었다. 이를 활용하면 이때 지은 시들을 더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다. 그 사이 서울

14) “楚辭猶帶餐英香, 晋史尙存寫露光. 報國男兒金力短, 天公應照萬貫黃.”

에서 『왕양명실기』(박은식)를 읽은 후기와 신의주에서는 압록강 철교 부설 현황을 본 소회를 남겼는데, 망명객의 통찰이 주목할 만하다.¹⁵⁾ 안동에서 횡도천까지의 길은 서간도 초기 망명객들이 공통으로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록에 남은 대개의 지명이 검색되지 않아 그 노정을 가늠하기 어렵다. 별도의 정밀한 고찰을 요한다.¹⁶⁾

橫道川(村)은 우리 기록에 興道村, 恒道村 등으로 다르게 표기되어 나타난다. 발음이 비슷하여 생긴 오기이다. 1937년 간행 『환인현지』에는 區村制 하제8구에 속한 마을 橫道川으로 나오며, 지금의 행정 지명 또한 遼寧省 桓仁滿族自治縣 二棚甸子鎮 橫道川村이다. 현재는 1968년 渾江 중류에 완공된 桓仁水庫로 형성된 거대한 호수 가에 위치해 있다. 환인현 중심에서 4시 방향으로 직선거리 20km 지점인데, 실제 도달하려면 남쪽 길을 우회하여 35km 정도 이동해야 한다. 석주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넘었다고 하는 雲門山은 옛 지지에도, 전자지도에도 나오지 않으며, 현지 인터뷰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민영규는 이 마을의 위치를 두고, “桓仁街를 50리 가량 앞두고 四道嶺子에서 셋길로 빠져 동쪽 계곡으로 20리 가량 빠져나가는 길목에 청인 농가가 20채 가량의 한적한 산간 마을”¹⁷⁾이라고 했다. 현재 횡도촌에 가기 위해서는 四道嶺子를 지나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동 방향이 부정확하다. 또 이 지리 상황은 1980년대 기준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¹⁸⁾

15) 『왕양명실기』를 읽고는, 옛것을 맹신하는 풍조를 타파해야만 자유의 사상을 꽃피울 수 있다고 했다. 압록강 철교 부설 상황을 보고는, “(완공되면) 연경이며 여순이며 하얼빈 등지가 모두 하룻길이 될 것이다. 국력의 부강함이 두려울 뿐 아니라, 그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큰 야욕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 알 만하다.”(『서사록(西徙錄)』 23일)라며 국제 정세의 미래를 우려했다.

16) 당장 석주와 같은 시기 앞서거나 뒤서거나 횡도천에 도착했던 이진승, 홍승헌 일행, 우당 이회영 일가가 같은 길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1919년 김산도 거의 같은 경로를 이용하여 신흥무관학교에 도착한다.

17) 민영규, 「강화학 최후의 광경」(『강화학 최후의 광경』, 우반, 1994), 28~41쪽. (이 글의 첫 발표는 『회귀』 3, 1987) 기술 내용을 보면 당시 저자는 현지를 방문했거나,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듯하다.

18) 필자 일행은 2025년 7월 22일 횡도천촌을 방문하였다. 며칠 전의 폭우로 두 곳이나 다리가 유실되어, 10여 km를 二柞線(현지에는 鳳柞線으로 표기) 도로를 걸어 이동하고 배편으로 돌아왔다. 댐 건설로 수몰된 지역이 많아, 우리가 이동한 길을 당시의 이동 경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석주 일행은 하필 망명의 첫 기착지로 횡도천을 선택했을까? 이 궁벽한 마을은 석주 일행 외에도 이회영 일행, 이진승 일행, 김대락 일행이 앞뒤로 일시 머물렀던 곳이다. 또 이들이 앞뒤로 三源浦로 옮겨간 뒤에도 일가 친지들이 거주하였으며, 삼원포와 왕래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1910년 여름 이회영, 이동녕, 이관직 등이 사전 답사를 통해 이곳을 점찍었으며 또 사람을 시켜 망명을 위한 거점을 만들어 두게 하였기 때문이다.¹⁹⁾ 둘째, 환인이 고구려의 첫 도읍지라는 사실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횡도촌에서는 산 사이로 오녀산성이 선명하게 보인다. 석주는 이렇게 말했다.

만주는 우리 단군 성조의 옛터이며 항도천은 고구려의 국내성에서 가까운 땅이었음에랴! 요동은 또한 기씨가 봉해진 땅으로서 한사군과 二府의 역사가 분명하다.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비록 복제와 언어가 다르다고는 하나, 그 선조는 동일한 종족이었고, 같은 강의 남북에 서로 거주하면서 아무 장애 없이 지냈으니, 어찌 이역으로 여길 수 있겠는가!²⁰⁾

이런 생각은 횡도천에 모인 망명객들이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석주보다 앞서 이곳에 온 이진승은 시에서 자신이 천년 만에 옛 땅으로 돌아왔다고 했으며, 여기에 “남북 만주는 옛 고구려 땅이다. 汶園(洪承憲)과 함께 오늘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나누었다.”라는 주를 달았다.²¹⁾ 하지만 천 년 이상 버려둔 고향은 쫓겨 돌아온 이들을 조금도 반겨주지 않았다. 다른 시에서는 주몽의 나라를 찾아오는 후예들이 길에 이어지지만, 옛 명성을 실추시키고 모두 떠돌이 나그네 신세가 되었으니 슬프다고도 했다.²²⁾ 같은 시기 환인 현에 동창학교를 세우고 여기서 가르쳤던 윤세복, 박은식, 신채호의 생각도

19) 이은숙, 『서간도시종기』, 일조각, 2017, 75, 6쪽.

20) 『국역 석주유고』 하, 「서사록」

21) 이진승, 『海耕堂收草』(월인, 2012). ‘西來偶存’, 「十二月一日, 離四幕渡江, 雇清人商車發行」 2. “此身正似遼陽鶴, 却待千年返舊居. (南北滿洲, 曾是高句麗地, 與汶園有吾輩今日返故鄉語.)”

22) 앞의 책, 「次春世韻寄之」(춘세는 李建芳) 3. “感此朱蒙國, 西來安欲明. 顛連皆後裔, 墜失舊家聲. (韓僑之來寓此土者, 相繼於途, 吾人皆東明之後, 而今來此土, 爲羈旅民, 噫其哀哉.) 大陸隨沈溺, 何時見太平. 尋思無善計, 且與幼安耕.”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²³⁾ 이들은 말없이 고구려의 첫 도읍지에서 그 기운으로 망명의 고통을 이겨내고 미래를 개척할 용기를 얻으려 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석주는 2월 22일부터 29일까지 부여사, 고구려사, 발해사 등 고대사를 읽으며 미래 역사의 방향을 설정했다.²⁴⁾

석주가 횡도천에 도착하여 지은 첫 번째 시는 「회인현 북산의 빈집을 빌려 잠시 머물다 懷仁縣北山, 賃空宅為暫留之計」이다. 懷仁은 桓仁의 원래 지명이다. 지명이 바뀐 때가 1914년이니, 1911년에는 회인이었다. 北山은 지지와 지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 북쪽의 산을 지금도 북산이라고 부른다. 지금은 사이에 넓은 호수가 놓여 있는데, 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그 사이로 물줄기가 흘렀고 북산 자락에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허물어져 가는 집은 가시덤불로 덮였고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이 집에서 석주는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매우 추위를 새삼 겪었으며, 그 속에서 蘇武와 句踐의 처지를 실감했다. 그리고 하늘이 고난을 겪게 하는 뜻을 새기며 각오를 다졌다.²⁵⁾ 횡도천과 북산 사이의 거리는 1km 남짓이다.

석주는 먼저 북산에 짐을 풀었고, 며칠 뒤에 횡도천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쫓겨나다시피 杜陵溝로 거처를 옮겼다. 당시 두릉구에는 홍승헌, 이병삼 등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옮긴 시점은 3월 2일이다.²⁶⁾ 당시 심경을 석주는 “50년 동안 너른 집 깊은 처마의 훌륭한 거처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집을 나서서는 문득 집 없는 신세가 되고 보니, 사람의 한 생애가 대부분 허깨비임을 깨닫겠다.”(『서사록』 2월 30일)라고 탄식했다. 두릉구는 김대락의 『백하일기』²⁷⁾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지지와 지도에 나오지 않을뿐더러 현지에

23) 이 시기 환인현의 망명 인사들과 횡도촌의 인사들 사이에는 별반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석주가 『왕양명실기』를 읽고 크게 감복한 사실, 이견승의 시 「題朴白巖殿植東明王實記史論」 4수 등으로 보아 서로의 존재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4) 이런 고대사 인식은 유하 이주 뒤 표면상 기자 중심의 역사관으로 바뀌는데, 서중석은 이를 현지 정착을 위한 변장운동의 일환으로 보았다.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73~78쪽.

25) “破屋三間掩莽榛，經年未掃沒脛塵。風紙喧來何國語，水牀凍作別人身。鼎冷蘇郎略有雪，廚空句踐臥無薪。上天豈是尋常意，偏俾男兒飽苦辛。”

26) 『서사록』에는 2월 1일로 잘못 적혀있고, 국역본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맥락을 고려하여 3월 2일로 바로잡아 제시한다.

서도 아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3월 3일 두릉구로 옮긴 직후에 지은 시의 “아침에 서쪽 물가를 좇아, 저물녘 북산 독에 투숙하였네. 朝從西水滸, 暮投北山堤.”²⁸⁾로 보아, 두릉구는 북산과 같은 곳이거나 그 한 부분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후 거처를 옮기기까지 석주는 죽 두릉구에 머물렀고, 김대락과 빈번히 만났다. 두릉구에서의 행적 중 주의를 요하는 건 스피노자, 홉스, 루소, 로크, 피히테 등의 글을 읽으며 자유주의 사상의 감각과 근대 국가론의 사유를 익힌 것이다.²⁹⁾



[그림 1] 횡도천 북산. 마을 터는 물에 잠겨 있다. [그림 2] 가운데 평평한 곳이 오녀산성.

횡도천과 두릉구에 머무는 동안 현지 관리들과의 접촉도 시작했다. 당시 처럼 대규모 망명 또는 이주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망명객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협상이었으며, 이는 망명 지도자들의 몫

27) 여기에 대해서는 강운정, 「백하 김대락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 『백범과 민족운동 연구』 7, 백범김구기념관, 2009; 정병석, 「일제강점기 경북 유림의 만주 망명일기에 보이는 현실 인식과 대응」, 『민족문화논총』 58,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4 참조.

28) 「두릉구로 옮겨서 우거하는데, 비서장께서 고품 한 수를 써서 보여주길래 차운하다 移寓杜陵溝, 賁西文書示古風一首, 走次其韻」이다. 매부 김대락의 『백하일기』 3월 3일 조에 원시 「送別萬初」가 실려 있다. 횡도천 시절 석주 행적의 많은 부분은 『백하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29) 「서사록」의 2월 16일, 3월 7일, 8일 기록에 독서 대상과 감회가 소개되어 있다. 석주의 서양 학문에 대한 관심은 의병 거사 실패 직후인 1908년부터 시작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귀현, 「석주 이상룡 선생의 서양철학 수용과 그의 개혁사상」, 『철학』 63, 한국철학회, 2000; 윤순갑·김명하, 「석주 이상룡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국가주의」, 『대한정치학회보』 12(2), 대한정치학회, 2004; 강운정, 「난세의 지식인 석주 이상룡의 공부」, 『안동학연구』 13, 한국국학진흥원, 2014 참조.

이었다. 「서사록」에 따르면, 횡도천 도착 나흘째인 2월 11일 순검 둘이 찾아와 단발번복을 요구했다. 충분히 예상한 일이었을 터이다. 석주는 가능한 선에서 관리들과의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고에는 半翁 李笑雲과 주고받은 4편의 시가 실려 있다. 『백하일기』 3월 26일 조에도, 전날 두릉에서 잔 뒤 이소운의 自治團所를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지은 시 2수가 실려 있다. 自治團은 宣統 2년(1910) 봉천성 전역에 시행했던 自治制의 결과로 만들어진 말단의 자치기관으로 여겨지며,³⁰⁾ 두릉구에 사무실이 있었던 듯하다. 자치단 방문은 정착을 위한 협상의 시작이다.

압록강 서쪽 오니 아는 벗 없는 데다	鴨水西來無故人
언어도 같지 않아 뜻 펼치기 어려워라	方音各異意難陳
그래도 반응 있어 속마음 비치노니	惟有半翁心肺照
빈번히 책 빌려도 꺼리지 않으시네 ³¹⁾	借癡塵笥不嫌頻

우리가 섬에 든 제 장사 아닐런가 ³²⁾	入島吾非齊壯士
강 건너 어느 뉘 초나라 어부일까 ³³⁾	渡江誰是楚漁夫
여러분 내 늙었다고 버리지 마시오라	諸君勿以衰頹棄
몸 살라 그날 위해 온 힘을 다하리니	致力他時不愛軀

「반옹 이소운에게 부치다 寄呈李半翁 笑雲」 두 수이다. 두 시의 어감과 목적이 다르다. 첫째 수는 서적인 친교의 목적이 두드러진다. 국적과 언어를 떠난 知己의 감성으로 정서적 친밀감이 글자 밖에 농후하다. 둘째 수는 도움을

30) 자치단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없다. 자치제에 대해서는 『통화현지』(1927) 권 2, 「自治志」에 소개되어 있다.

31) 借癡는 '책 빌려주는 바보'란 뜻이다. 杜預가 「與子書」에서 “책을 빌려주는 사람이 첫째 바보요, 돌려주는 사람은 둘째 바보 借書一嘍, 還書二嘍.”라고 한 이래 일종의 격언이 되었다. 나중에는 “책을 빌리다”라는 뜻으로 전용된다.

32) 한나라가 건립되자 제나라의 田橫이 후일을 기약하며 장사 5백 명과 함께 섬으로 들어갔다가, 고조의 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자결하였다. (『사기』, 「전횡열전」)

33) 伍子胥가 楚나라 군사의 추격을 피해 오나라로 도망칠 때 어떤 한 물가에 이르렀는데, 한 어부가 건네주어 살아났다. 오자서가 보검으로 보답하려 했으나 어부는 받지 않았다. (『사기』, 「오자서열전」)

요청하는 뜻을 담았다. 1, 2구에서는 초나라 어부가 되어 우리를 도와달라는 뜻을 은미하게 표현했고, 3, 4구에서는 한 몸 돌보지 않고 노력할 테니 외면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바로 질러 말했다. 이에 이소운도 거기에 맞춰 답시를 지었다. 첫 수에서는 조국을 떠나서도 개혁에 힘쓰는 자세에 감탄을 표현했고, 둘째 수에는 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허무한 일이니 뒷날을 위해서라도 몸을 아끼라는 덕담을 담았다.³⁴⁾ 한시를 매개로 하여 필담의 방식으로 한 전통의 교유이니, 두 사람의 한문 교양이 넉넉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³⁵⁾ 이런 교유 방식은 초기 한인들의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매우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⁶⁾

석주는 횡도천에서 13제 14수의 시를 남겼다. 한겨울에 도착했으니 고향 안동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낮은 기온에 망명객의 처지가 겹쳐 한기를 견디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의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고대사와 사회계약론 등을 읽으며 마음을 다졌다. 또 이 시기만 해도 얼마간 고생을 견디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넘쳤다. 아래 시는 횡도천에서의 심경을 잘 보여준다.

이역의 객이 되어 처신이 곤란타만	殊方為客處身難
노숙이 어려울까 분수 본디 빈한한 걸	露睡無妨本分寒
조만간 달빛 아래 삼경 함께 거닐리니	早晚同携三逕月
원컨대 잘 자서 어 근력을 지키시라	願言加饌保平安 ³⁷⁾

34) 「附次韻」 기 1. “堪羨君為兩世人。身逢改革務推陳。年來半是新編箸，墳典何須奉獻頻。” 기 2. “人到夷齊乃國士，最堪憐處是征夫。陸生葬海渾閑事，致念他時要愛軀。”

35) 이소운은 『통화현지』(1926) 권 2, 「人物志, 流寓志」에 출신과 관련, 문집과 취향 등이 300여 자 분량으로 소개되어 있다. 여기 따르면 그는 절강성 출신으로 원래 이름은 文藻였는데 뒤에 塞翁으로 바꾸었다. 笑雲은 그의 자이다. 광서 26년 광서 26년(1910) 阮毓昌의 추천으로 通化和 桓仁 등 다섯 개 고을의 鑛務를 담당했다. 74세로 소개되었으니 1911년에는 59세였다. 난세의 隱士로 평가했다.

36) 「소원 왕배림의 부체에 적다. 題王筱園培霖扇面」 또한 이런 교유의 산물로 보인다. 왕배림은 미상.

37) 「비서장계서 다시 절구 한 수를 보냈기에 차운하여 올린다. 賁西丈再寄一詩次韻以呈」.

2) 정착의 시도, 민족운동의 출발, 永春院

당시 횡도천에 기착했던 망명 지사들은 대개 柳河縣의 三源浦(堡)로 향했다. 석주가 횡도천에 머문 기간은 두 달 반 정도이다. 석주보다 앞서 백하가 4월 11일 떠났다. 巴猪江을 건너 14일 快多毛子에서 묵고 15일 통화에 도착했다. 이때 통화는 지금의 통화현이 아니라 통화시이다. 17일 新開嶺을 넘어 영춘원에서 묵은 뒤 19일 寓所에 들었다. 1926년 「통화현전도」를 기준으로 하면 백하는 大泉村(지금의 大川鄉), 大都嶺子(大都嶺村), 快大茂子(통화현), 통화현, 二密河(二密鎮), 干溝를 거쳐 삼원포에 이른 것이다. 이는 지금의 鶴大線, 集錫線 국도와 거의 일치한다.³⁸⁾ 석주를 비롯한 망명객들의 이동 경로 또한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석주가 횡도천을 떠난 날짜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백하 일기』에 추정할 만한 단서가 있다. 백하는 5월 23일 조에 이광민(李光民, 1895~1945)이 찾아와 그의 백부가 영춘원으로 갔다는, 24일 조에는 석주가 영춘원의 집에 세 들었다는 소식 전해 주었다고 했다. 이광민은 석주 삼형제 중 막내인 이봉희(李鳳羲, 1868~1937)의 장자로, 그의 백부는 곧 석주이다. 이러한 증언으로 우리는 백하의 거처와 영춘원이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을, 또 석주가 대략 5월 17일 즈음 횡도천을 떠나 23일 영춘원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백하의 거주지는 二道溝였다.³⁹⁾ 석주가 횡도천에 머문 기간은 2월 7일에서 5월 17일까지 100일 정도 되는 셈이다.

석주는 영춘원에서 한동안 머무는데, 석주의 시에 영춘원이 나오는 건 같

38)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명은 新開嶺이다. 이 고개는 100년 전 지도에서도, 오늘날에도 환인과 통화의 경계 고개이다. 오늘날의 통화시 중심에서 12시 방향 8km 지점에도 신개령이 있다. 백하가 17일 넘었다는 신개령은 일정에 비추면 후자인데, 이 고개가 삼원포로 가는 길목에 있지 않은 점이 문제다.

39) 『백하일기』 1911년 11월 2일 조 「冬至前夕」에 “삼한의 일을 통곡하면서, 이도구에서 쓸쓸히 산다. 慟哭三韓事, 蕭條二道區”란 구절이 있고, 마지막 구에 “지금 사는 곳, 今所寓”란 주를 달았다. 그런데 이 즈음 석주 시의 제목 「유하진의 이도구에서 비서장과 함께 짓다, 柳河鎮二道溝, 與賁西丈共賦」로 보아, 二道區가 二道溝였음을 추지할 수 있다. 현재 삼원포 북쪽 3km(직선) 지점에 二道溝鄉이 있는데, 여기가 일시 백하가 거주했던 이도구 마을로 보인다. 이곳은 신흥학교가 있던 鄒家街와도 3km 떨어져 있어 통학이 가능했다. 이 해에 백하의 손자가 신흥소학교를 다녔다.

은 제목의 7언율시 두 수이다.

광진 못 쓸어내면 돌아가지 않으리란	不掃狂塵誓不歸
맹세 읽은 그대 안목 참으로 정미하오	許君看得義精微
뉘 낫으로 선조 영전 절을 하리요	何顏去向皇靈拜
우서가 날아감을 두 눈으로 보리라	此日懸觀羽書飛
만 리를 달아나서 험지를 밟았으니	萬里狂奔蹈險地
10년을 힘 기르며 시기를 기다리리	十年生聚待時機
모두 다 자기 한 몸 밖에 내놓았으니	都將七尺非吾有
하물며 이갓 머리카락 의복쯤이라	何況區區髮與衣

「영춘원에서 비서장과 헤어지며 드리다, 永春源贈別賁西丈」 첫 수이다. 백하가 영춘원으로 석주를 찾아가 만났고, 헤어지는 상황에서 지어진 시이다. 『백하일기』 1911년 6월 29일 조의 「與萬初拈韻」과 같은 운자이다. 둘째 수의 내용으로 보아, 두 사람은 날이 저물도록 술을 마셨고, 함께 묵었으며, 머잖아 추가가의 모임[鄒社]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을 알 수 있다.⁴⁰⁾ 『백하일기』에 따르면, 백하는 1912년 哈泥河 蘆州로 이주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영춘원을 찾았으며, 석주가 백하의 거처를 찾은 횡수는 더 많았다. 1911년 아침 백하는 지팡이를 들고 석주가 있는 영춘원으로 향했는데, 그곳을 남북 왕래의 요로라고 했다. 이도구와 영춘원 사이는 67세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찾아갈 만한 정도의 거리였다.

1, 2구는 두 사람의 의기투합을 말한 것이다. 이날 석주가 지은 시에 “여러분의 단결된 힘에 기대어, 광진을 쓸어내고 평화롭게 살고 싶네. 願仗諸君團體力, 狂塵一掃放牛桃.”란 구절이 있다.⁴¹⁾ 狂塵은 석주가 즐겨 사용한(5회) 시어로, 당시 어지러운 정국을 뜻한다. 이날도 석주는 같은 말을 했는데, 백하가 그 말에 깊이 공명해 주었음을 말한 것이다. 3~6구에는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힘을 길러 10년 뒤를 기약하는 뜻을 담았다. 마지막 두 구절은 단발개

40) 위의 시 2. “山窓日晏客思歸, 酒盡銀壺絃語微. 涼露三宵聯鶴夢, 晴天孤影見鳧飛. 人情滾似絲中緒, 世事翻多局面機. 未久前期鄒社在, 不須惆悵攬征衣.”

41) 「비서장과 함께 사가집 안의 운을 뽑아 짓다, 與賁西丈拈四家集中韻」의 7, 8구.

복에 대한 의견이다. 『백하일기』 6월 5일 조에는, 석주가 萬里溝⁴²⁾의 순경국에 가기 위해 머리를 자르고 청복을 입은 사실을 언급하며, 신선 같은 풍채가 없어짐을 몹시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기록되어 있다. 시에서도 단심으로 죽기를 각오했으니 외모가 어린아이처럼 바뀌었다고 했다.⁴³⁾ 많은 사람이 목숨을 내놓았으니, 그깟 머리카락이나 의복이 뭐가 중요하냐는 말이다. 석주는 이런 점에서 매우 단호한 면모를 보여준다.⁴⁴⁾

이 시는 1911년 6월 말 유하현 영춘원의 한 셋집에서 있었던, 안동을 떠난 67세와 54세 처남 매부 두 노망명객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풍경을 그림처럼 보여준다. 한 사람은 백의 차림에 상투 형색인데, 한 사람은 단발에 흑의를 입었다. 말투에는 강한 안동 억양이라서, 조금 흥분하면 금세 어조에 비분이 넘친다. 그런데 이 永春院(源)은 어디일까? 이 지명은 1907년 간행된 『유하현향토지』와 1991년 간행된 『유하현지』에는 나오지 않는다. 인터넷에서도 검색되지 않고, 현지 조사에서도 아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삼원포를 목적지로 떠난 석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 영춘원에 거처를 잡은 점, 백하의 손자가 국수를 사러 갈 정도로 인근에서 가장 변화한 곳이라는 점, 그리고 二道溝와 丹葦溝(大牛溝)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영춘원은 삼원포 내의 하위 지명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삼원포는 이도구와 대우구 사이에 있어, 오가기 위해서는 삼원포를 지나야만 한다.

1911년 10월 21일 이준형은 이도구의 백하를 찾아와 거처를 옮길 계획임을 알렸다. 11월 4일의 기록에서는 “아이가 영춘원에 갔다가 석주가 사는 단위구로 향했다.”⁴⁵⁾고 했다. 단위구는 석주가 이사한 大牛溝인데, 두 단어의

42) 萬里溝도 확인되지 않는 지명이다. 그런데 이해동, 『만주생활실질년 - 一松 선생 만머느리 李海東 여사 手記《亂中錄》』, 명지출판사, 1990, 30~45쪽에 따르면, 이들 가족이 1911년 초 망명하여 삼합포(삼원포) 남쪽 10리 중국인 마을 萬里溝에 정착하였다고 했다. . 1923년 초 영안현 周家屯(지금의 영안시 강남촌)으로 이주, 1926년 봄 하얼빈 阿城 平房 이주) 『유하현향토지』(1907)에 따르면 당시 삼원포 일대는 興陽堡였고, 大牛溝에 순경분국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만리구와 대우구가 동일 장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3) 다음은 5언율시의 후반 네 구절이다. “丹心將死敵, 由髮反爲兒. 願將新世界, 還作舊時規.”
44) 같은 날 지은 「또 운을 뿔아 비서장께 보이다. 又拈韻示黃西丈」의 3, 4구에도 그런 뜻이 분명하다. “晦迹猶嫌存姓字, 循鄉何惜變衣冠.”

45) 「서정록」, “兒子去永春源, 因向丹葦溝, 萬初所寓之地也.”

발음이 비슷하여 생긴 오류이다. 백하는 시종 단위구로 표기하였다. 대우구는 삼원포에서 4시 방향으로 5km(직선) 떨어진 곳에 있던 마을로, 지금의 이름은 安仁村이다.⁴⁶⁾ 석주는 10월 말, 늦어도 11월 1, 2일에는 대우구로 이사했던 것이다. 각주 38)의 추론처럼 만리구와 대우구가 같은 장소의 다른 이름이었다면, 순경국이 있는 마을에 거처를 잡은 셈이다. 아래는 대우구로 이주한 직후에 지은 시이다. 지금은 떨어지고 몸은 늙어가는데 밤은 추운 여러 겹의 고단한 처지 속에서도 노망명객의 의기가 형형하다.

이불이 낡은지라 차기는 서리 같고	布衾年久冷如霜
먼 객이 잠 못 드는 가을밤은 길어라	遠客無眠秋夜長
낡은 고향 가나 구름이 만 겹이요	故國魂歸雲萬疊
이몸은 외진 산 깊은 숲속에 있네	窮山家住木千章
황금은 벗님 쫓아 흩어져 사라졌고	黃金盡逐賓朋散
바삐 가는 세월에 백발만 놀라워라	白髮偏驚歲月忙
살아선 잊지 못할 일 하나 있으니	未死難忘惟一事
허리춤의 용천검 때때로 울부짖네	腰間時吼怒龍光 ⁴⁷⁾

석주는 대우구에서 1911년을 보내고 1912년을 맞는다. 이로부터 8년 동안 석주가 지은 시는 22제 49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중 「次金賈西贈李溟坡韻」(1912) 6수, 「輓白下金文」(1915) 7수, 「滿洲旅遊, 次李紫東正模松京懷古韻」(1919) 12수를 제외하면 24수밖에 되지 않는다. 1년에 서너 편밖에 짓지 못한 셈이다. 신흥무관학교 초대 교장을 5년 역임하는⁴⁸⁾ 등 이주 韓僑의 정착과 권익, 그리고 독립을 위한 교육 운동에 매진하느라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 석주의 행적은 「耕學社趣旨書」, 「呈柳河縣知事文」, 「呈柳河縣知事請入籍文(代韓僑作)」, 「中華民國國會提議書」, 권 5 「敬告南滿洲僑居同胞文」 등의 글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기록에 담기지 못했다.

46)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1940년 安仁이라는 항일열사가 이곳에서 죽어 그 뒤로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47) 「대우구의 가을 밤, 大牛溝秋夜」.

48) 이은숙, 『서간도시종기』, 일지사, 2017, 35, 6쪽.

3) 고대사의 회고와 탄식, 휘파성(輝巴城)

1921년 군사통일위에 참여하기 위해 북경을 다녀온 뒤 남긴 『燕薊旅遊日記』에서, 석주는 망명 이후 10여 년 동안 다녀본 곳이라야 安圖·寬甸·桓仁·通化·柳河·海城·琿春·磐石·樺甸 아홉 개 현이 고작이라고 했다. 이 중 안도, 해성, 훈춘은 석주의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또 준형이 기록한 「선부군 유사」에는, 석주가 1918년 무예 훈련을 보기 위해 密什哈에 가서 머무를 때 서울에서 온 金佐鎭과 만나 의기투합했으며,⁴⁹⁾ 가을에 해룡(海龍)의 寓舍로 돌아왔다고 했다. 해룡은 梅河口市 海龍鎮으로, 매하구시에서 1시 방향 16km 지점 휘발하 북쪽에 있는 고을인데, 이 지명은 여기 한 차례만 보인다. 석주는 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룡 어디에 살았던 것일까? 이 두 사례는, 남은 기록만으로는 도저히 유추할 수 없을 만큼 이 시기 석주의 행적이 역동적이었으며 많은 부분이 의문에 부쳐졌다는 사실이다.

1919년 지은 석주의 시는 5제 7수만 남아있다. 이 중 안동 예안면 도촌리 출신 裴永進(1864~1919)⁵⁰⁾의 죽음을 애도한 시를 빼면 4제 4수가 전부다. 모두 배영진이 죽은 9월 7일 이전에 지어졌다. 그런데 그 지명들이 낯설다. 이 해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석주는 어디를 갔던 것일까?

조양 가는 큰길은 강 따라 굽이치고	朝陽大道挾江盤
동으로 이틀 가도 산 하나 아니 뵈네	兩日東馳不見山
쌀 파려는 농부 수레 반석에서 이르고	賣米農車磐石到
사람 실은 상선은 길림으로 돌아가네	載人商帆吉林還
가로세로 걸린 전선 새로운 중국이요	縱橫電線新民國
눈부신 금빛 글자 지난 시절 관아로다	輝映金扁舊鎮官
취몽에 허송 천년 옛 땅에 임했나니	醉夢千年臨故土
휘파성 유적 차마 대할 면목이 없네	輝巴遺蹟對無顏

49) 『석주유고』 권 4의 「답김좌진」은 “密什에서 맹세한 것도 변하지 않았고, 화전 입구에서의 약속도 두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선부군유사」의 기록이 맞다면 이 편지는 1918년 봄에 작성된 것이다. 『석주유고』에는 또 당시 왕청에 있던 徐一에게 쓴 편지도 두 편이 실려 있는데, 이 편지들이 속한 상황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50) 디지털안동문화대전

(<https://www.grandculture.net/andong/dir/GC02401636>, 검색일: 2025.06.18.)

제목은 「조양진을 지나며 過朝陽鎮」이고, 마지막 구절에 “휘파성은 고구려의 옛 성”이라는 주석이 붙어 있다. 조양진은 지금은 있는 지명으로, 通化市 輝南縣에 속해 있으며 휘발하 남쪽 연안의 고을이다. 석주는 큰 강을 따라 평야 속을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여기에 부합하는 이동 경로는 梅河口市에서 휘발하를 따라 가는 길이다. 거리는 대략 40km이며, 일대는 다 평야이다. 3, 4구는 북쪽의 磐石市에서 쌀을 싣고 오는 농부(또는 미곡상)들의 수레, 강물 위에 떠가는 상선들의 풍경을 그렸다. 미곡 수레들도 상선에 싣기 위해 오는 것들이다. 휘발하는 2시 방향으로 100km 가량 흘러(사이에 樞甸을 지남) 松花江에 합류하여 길림시로 북류한다. 조양진 가까운 곳 휘발하 가의 풍경이 역동성을 지닌다.

5, 6구는 사물로 시간의 변화감을 구현하였다. 당시는 민국 9년이라, 신중국과 구중국의 공존하며 교차하는 시점이다. 가로세로 걸린 전선들에서 새 시대의 변화상이 느껴지는데, 마을의 공관들에는 아직 구시대의 금빛 글자 편액이 붙어 있다. 시인은 농거와 상선을 보며 과거와 현재 사이로 휘발하를 따라 이동하는, 조국을 떠난 62세의 망명 노객이다. 여기서 그는 다시 愴然함에 사로잡힌다. 고성 때문이다. 8구의 ‘輝巴遺蹟’은 조양진 동북쪽 17km 지점 휘발하 동안에 있는 輝發古城을 가리킨다. 강에 붙어 있으며 주위에 다른 산이 없어, 휘발하를 타고 가다 보면 목도할 수밖에 없는 성이다. 고구려 초기에 축조되었고, 발해 시대엔 回跋城으로 불렸으며, 1607년 누르하치에게 함락된 내력을 지닌다.⁵¹⁾ 석주는 이 성의 존재 앞에서, 천 년 넘게 역사를 방치한 탓에, 망국민으로 그 땅을 다시 찾은 회한을 말하고 있다.⁵²⁾

이 시 다음에 「흑석두 가는 길, 黑石頭道中」이 놓여 있다.

수레가 고개 넘어 흑석진 초입이라

車轉嶺過黑石頭

51) Baidu.com 백과에 실린 내용이다. 이 성은 보통 고구려성을 개축한 명대 성으로 알려져 있다. 성의 규모와 유물에 대해서는 吉林省文物管理委員會, 「輝發城調查簡報」, 『文物』, 1965년 7월 참조.

52) 이 성에 대해선 17세기 중반 寧古塔으로 유배된 오조진이 「過灰扒廢城」(『秋筭集』 권 2)을 지었고, 건륭제도 1754년 등순 중 「輝發古城懷古」, 「登輝發古城再賦」(蔣溥 편, 『御製詩二集』 권 52)를 남겼다.

깊은 산중 트이며 큰물이 흘러가네	亂山中坼大江流
겹겹의 비단 휘장 상점들 열려 있고	紋縵疊摺開商店
들쭉날쭉 푸른 기와 주루가 분명하다	碧瓦參差認酒樓
바람 앞의 준마는 가로질러 달려가고	風前快馬橫貫去
거울 속 작은 배는 유유히 떠 있도다	鏡裏孤舟自在浮
하이얀 눈 천지에 두어 칸 화전 여숙	二舍樺僑天下雪
아이는 맞이하며 눈동자만 굴리누나 ⁵³⁾	候門稚子幾回眸

黑石은 黑石鎭(磐石市)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頭’는 고을이 시작되는 머리를 뜻한다. 흑석진은 휘파고성에서 동쪽으로 휘발하를 따라 40여 km 지점에 있는 고을이다. 휘발하 북쪽 연안에 있다. 석주는 계속 휘발하를 따라가고 있다. 1, 2구로 보아 석주(일행)은 수레를 이용하고 있다. 3, 4구는 흑석진의 시장 풍경을, 5, 6구는 시야를 넓혀 휘발하 유역의 광경을 그렸다. 3구와 4구는 붉은 비단과 푸른 비단의 짝이 조화를 이루고, 5구와 6구는 달리는 말과 떠 있는 배의 짝이 動靜을 표현한다. 3, 4구와 5, 6구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장의 화려함과 한겨울 교외의 스산함으로 안팎을 구성한다. 온 세상이 눈으로 덮이는 가운데 화자는 여숙 문을 두드렸는데, 맞이하러 나온 아이는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 행색에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앞서에서와 달리, 석주는 감정은 감춘 채 시야와 시선을 바꿔가며 아주 담박하게 풍경만을 그리고 있다. 두 시만 놓고 보면, 석주는 1919년 초겨울 조양진, 휘발고성, 흑석진을 거쳐 휘발하를 따라 화전으로 이동하였다.⁵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준형의 「선부군유사」에 단서가 실려 있다. 여기 따르면, 석주는 1918년 해룡진에 거주하면서 동짓달에 조출하게 회갑연을 가졌고(음력 11월 24일, 양력 12월 27일), 1919년 정월 가족들과 함께 樺甸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살핀 두 수의 시는 해룡에서 조양과 흑석을 거쳐 화전

53) 7구는 풀이가 어렵다. 숨는 집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칸’으로, 樺는 樺甸으로, 僑는 맥락상 여숙으로 풀이했다. 僑의 의미는 교포이니, 화전 땅 교포의 집으로 볼 수도 있다. 흑석진은 행정구역상 磐石市에 속하나 거리는 樺甸市와 훨씬 가까워, 화전 땅으로 보았을 수도 있다. 8구의 첫 네 글자는 「귀거래사」의 “僮僕歡迎, 稚子候門.”에서 가져온 것이다.

54) 이다음 배치된 시는 「到腰坡」이다. 腰坡라는 지명은 찾지 못했는데, 현재 흑석진에 腰街라는 지명이 있어 관련성을 추정하게 한다. 현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숙제로 남겨둔다.

으로 이주하던 가운데 지은 것이다. 해룡진에 거주한 시기와 계기, 슬기하여 화전으로 이사한 경위 및 새 거주지는 모두 불분명하다. 다만 이주 뒤 3.1만 세운동이 거족적으로 일어나면서 독립운동이 활기를 띠자, 유하에서도 사람을 보내 앞으로의 일을 품의하고, 김좌진이 찾아와 예를 갖춰 설득하자 유하로 돌아갔다고 한 것으로 보아,⁵⁵⁾ 모종의 갈등이 있었고 수습되는 과정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 석주는 1918년에 화전에 병농일치의 吉南莊을 조직한 적이 있으니,⁵⁶⁾ 유하와는 다른 독자 노선을 모색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유하로 돌아온 석주는 심기일전하여 다시 독립운동의 일선에 나선다.⁵⁷⁾

4) 형제와의 단란한 여러 날, 밀십합(密什哈)

1920년부터 석주의 시작이 다시 많아졌다. 이해 지은 시만 35제 41수나 남아있다. 남은 시가 많아서일까, 역사의 급박한 상황 때문일까, 결과적으로 이 해의 표정과 동향이 풍부해졌다. 백두산 아래 內島山으로 사위 강남호(1894~1950) 등 세 청년을 전송하며 檀帝의 보살핌을 얻었고,⁵⁸⁾ 「안도에 주둔하고 있는 敎成隊⁵⁹⁾ 대원들이 겪고 있을 고초를 떠올리면서도 이들 중에 건국의 영웅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⁶⁰⁾ 이 시들은 이해에 있었던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편 국내의 둘째 아우 相東에게 부친 시에서는 서구에서 평화주의를 제창했으니 10년의 와신상담 끝에 독립의 시기가 왔다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⁶¹⁾ 1920년 전반

55) 여기 따르면 석주와 김좌진은 1918년 密什哈에서, 또 1919년 화전에서 두 차례 만났던 셈이 된다.

56) 권 5, 「三義士合傳」(1924). “戊午春, 余於樺甸, 設吉南莊, 募二十歲以上壯丁, 爲農兵, 使半日力耕, 半日習兵.”

57) 3.1운동에 대한 소감을 이후의 다짐을 담은 「與趙西川貞奎」(권 3), 남만주 韓僑의 통합과 권익을 위한 대책을 담은 「與懷仁縣韓僑公會會長 孫曷憲」(권 4)는 복귀 직후에 지어진 것이다.

58) 「送成駿用李範錫美南鎬遊內島山」, “... 此行必獲神明助, 檀帝於昭眷大東.”

59) 6월 봉오동전투 이후, 1920년 7월 신흥무관학교 폐교, 지청천 등은 300여 명의 신흥무관학교 생도, 졸업생으로 교성대를 편성하여 북로군정서에 참여, 청산리전투에서 공을 세움.

60) 「憶安圖分駐敎成隊諸君」, “敗絮垢衣不掩風, 齏塩朝夕腹應空. 誰知異日新韓運, 建國英雄出此中.”

61) 「聞健初出監之報次德初寄示韻」 1의 앞 4구. “取舍熊魚夙講知, 十年薪膽度支離. 西隣忽倡平

기, 석주는 국외에서 들려오는 평화주의의 기류와 신흥무관학교의 성과 등에 힘입어 독립의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꿈은 하반기가 시작하면서 산산조각 났고, 곧이어 절망으로 바뀌었다. 몇 차례의 전투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이 적지 않았고, 일제의 대대적인 보복 토벌로 군대는 물론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석주는 경솔하게 전투에 나선 것을 자책했다.⁶²⁾ 청산리 전투의 첩보에 귀가 번쩍 뜨였지만, 이어 우리 군사들이 흩어져 쫓긴다는 소식에 낙담했다.⁶³⁾ 독립군 부대가 일군에 쫓겨 북쪽 러시아와의 접경 도시 密山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이들의 건승을 기원했다.⁶⁴⁾ 하지만 석주의 염원과 반대로, 독립군 부대는 이듬해 러시아에서 자유시참변을 겪는다. 가장 경악스러웠던 건 뒷날 경신참변 또는 간도참변으로 일컬어진, 연길과 훈춘 등지에서의 민간 한인 학살 소식이었다.⁶⁵⁾ 석주는 치를 떨었지만 그분, 불가항력이었다.

남은 시들로 보아 이 해에 석주는 독립군의 동향과 국외 열강의 정세 등 국내의 여러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어떤 시를 보면 樺甸에 있었나 싶은데,⁶⁶⁾ 다른 시를 보면 柳河에 있었던 것도 같다.⁶⁷⁾ 어떤 시에 미친개[狂狗]들의 잠입 암행을 잔뜩 경계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미친개는 독립군의 승리 이후 토벌에 앞서 암약했던 친일 밀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⁶⁸⁾ 하지만 여기가 어디인지를 알 만한

和議, 東國途回獨立時.” 3구는 1919년, 1920년의 파리강화회의와 여기서 선언된 민족자결주의를 가리킨다.

62) 「自悔」 3, 4구. “不量天時輕豎幟, 徒戕無數好青年.”

63) 「聞青山一捷後我軍散亡殆盡」, “青山捷報耳初醒, 一戰能殲數百兵. 不善指揮司命責, 終教健卒散如星.”

64) 「梁白堂圭烈書來言, 我軍自敦化轉向俄領地」, “千里氷山路入雲, 無衣無藥度孤軍. 皇天在上垂冥佑, 義士今行定立動.”

65) 「聞日兵所過燒殺, 延瑋等地盡化灰燼」, “倭騎跳踉兩旅團, 所過屠殺血成瀾. 貫盈爾罪天應厭, 惡報昭昭待後看.”

66) 「車用陸, 始聞其死, 生還至樺, 喜不可言」.

67) 「金弼, 既脫圍圈, 再入柳縣, 為日兵所獲, 竟被虐殺」.

68) 「聞狂狗入街」 2수. 이 즈음에 지은 시로, 문중 사람 承一이 일군에 붙잡힐 위기에 처했다가 벗어난 긴 제목의 시에 “문틈으로 엿보니, 적 10여 명이 대어섯 狂狗를 데리고 집을 세 겹

단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해 지은 시편들 가운데 密什哈이라는 곳에서 지은 작품이 보여 의아함을 자아낸다. 전술한바 密什哈은 1918년, 1919년 김좌진과 두 차례 만났던 곳이다. 석주는 왜 이곳을 찾았던 것일까?

한 수 시의 긴 제목에 그 경위가 설명되어 있다. 여기 따르면, 이 마을에는 원래 석주의 매제 朴慶鍾(1875~1938)이 살고 있었다. 이해 봄에 심양에 살던 막내 아우 鳳羲(1868~1937, 호는 尺西)가 이곳으로 이사했다. 석주도 北臺에 있다가 11월 초 이곳을 찾았다. 마침 석주와 척서는 생일이 똑같이 11월 24일인지라 함께 생일상을 받았다. 고국을 떠난 삼남매가 처음으로 낯선 이역에서 단란한 시간을 보낸 것이다. 석주는 이 상황이 매우 즐거우면서도, 시국이 위태로워 동지들과 술잔을 나누지 못하는 것, 본국의 막내와 연락이 끊긴 것을 못내 안타까워했다. 시는 이러하다.

예순세 살 생일이 돌아왔으니	六十三旬惝酒回
오늘 아침 마음을 가누기 어려워라	今朝感想最難裁
형제가 나란하니 즐겁긴 하나	弟兄差樂聯長枕
북대의 처자와는 떨어져 있네	妻子相離阻北臺
빈손의 경륜이라 그림 속 떡이 되고	赤手經綸歸畫餅
백발에 시름겨워 화로 재 뒤적이네	白頭愁思坐書灰
사람에겐 성쇠의 운이 있으니	人身自有消長運
어서 빨리 새해가 돌아오기를	只願新年早到來

당시 석주의 여러 상황을 알려준다. 첫 두 구는 이 시가 지어진 시점과 감회를 말해준다. 3, 4구는 망명 생활 중 한때 형제의 단란한 즐거움을, 동시에 처자와는 함께 하지 못하는 서글픔을 나란히 놓았다. 5, 6구에서는 노망명객의 좌절감이 배어 나온다. 경륜을 품었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맨손 신세이고, 나이는 벌써 63살이나 되었으니 앞날을 도모하기도 어려워 하릴없이 부절가락으로 화롯불의 재나 뒤적이고 있다. 7, 8구 또한, 어차피 이 해는 바랄 게 없으니 어서 새해나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체념과 낙망의 정서가 쓸쓸

으로 에워쌌다. 從窓隙窺，敵十餘名，帶五六狂狗，繞屋三匝。”는 구절이 있다.

하다. 이 해 석주는 한껏 기대에 부풀었고, 반짝 희망을 보았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좌절을 체험했다.

이 시는 당시 석주의 행보에 대한 단서도 담고 있다. 석주는 북대에서 密什哈으로 갔으며, 북대에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다고 했다. 또 「서구를 지나 북대로 돌아가다 過西溝還北臺」라는 시를 남겼으니, 석주의 거주지가 북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의 앞에 「큰 재를 넘어서 금사하에 이르다 躡大嶺到金沙河」가 실려 있는데, 밀십합에서 금사하까지의 거리를 30리라고 했다.⁶⁹⁾ 금사하는 화전현 동북쪽에 흐르는 물줄기로 휘발하의 지류이다. 화전 기준으로 밀십합까지는 24km이며, 여기서 12km를 더 가면 小密什哈村이 있다. 이 마을이 석주가 두 차례 김좌진과 만났으며, 1920년 11월 석주 형제들이 모였던 密什哈이다. 북대는 어디일까? 석주는 밀십합에서 서행하여 금사하를 건너(西溝를 지나) 북대로 돌아갔다. 지금의 화전시 중심에서 정북향 1.5km 지점에 北臺子鄉이 있다. 지금의 북대자향을 당시의 북대로 단정할 증거는 아직 없지만, 북대가 화전 경역이었음은 분명하다. 직전 시기 석주는 화전에 거주했었거니와, 귀로에 만난 李震山(1880~?)에게 준 시에서도 화전 거리 운운하는 구절이 있으며,⁷⁰⁾ 뒤에 呼蘭으로 이주할 때도 화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밀십합에서의 여러 날은, 망명 10년의 준비와 운동이 허사로 돌아간 가장 절망의 시기에 얻은 형제들과의 단란한 시간이었다. 석주는 두 아우와 다시 헤어지면서 그 심정을, “마을에는 짚는 개가 숲에는 범 없으니, 수십 일 한 이불 덮고 잘 쉬고 돌아가네. 村無吠犬林無虎, 大被連旬穩睡還.”⁷¹⁾라고 했다. 개와 범의 비유로 보아 이곳에는 아직 일제의 마수가 미치지 못했었음을 짐작한다. 이 지역이 한때 군사 훈련 장소였고, 또 김좌진과 두 차례 만났던 이

69) “강바람이 날린 눈 성처럼 쌓였으니, 일곱 걸음에 세 번 쉬고 네 번을 엎어지네. 힘겹게 30리 길 금사하에 이르니, 서산은 달 머금은 저녁 연기 빗겼도다. 江風簸雪積如城, 七步三休四跌傾. 困到沙河三十里, 西峯啣月暮烟橫.”

70) 「中路逢李震山」 5, 6구. “화전 거리에 주구들 출몰하니, 액현에도 범들이 횡행하리라. 現在樺街狗出沒, 將來額縣虎縱橫.”

71) 「밀십합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출발에 앞서 척서에게 보이다. 自密什哈回家臨發示尺西」의 7, 8구.

유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왜 하필 밀집합이었을까 하는 의심은 풀리지 않았다. 현재 밀집합은 길가의 작은 마을이다. 마을 주민들은 근처 永樺屯이 조선족 마을인데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묻지도 않은 것을 말해주었다.⁷²⁾



[그림 3] 密什哈村 원경, 가운데 密什哈 표지판.



[그림 4] 密什哈 표지판을 확대한 근경.



[그림 5] 화전으로 돌아가며 석주가 건넌 金沙河.

5) 체념과 망우의 낚시질, 호란하(呼蘭河)

1920년 12월 초(추정) 화전으로 돌아온 석주에게 북경에서 성준용이 손님으로 왔다. 박용만 등이 주관한 군사통일회⁷³⁾의 초대를 받은 것이다.⁷⁴⁾ 석주

72) 본고에는 2025년 7월 21일~27일의 답사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 소밀집합촌은 24일 방문하였다.

는 초대에 응하여 길을 떠나 길림시에서 새해를 맞았다. 4월의 회의에 참석했으나 이견이 분분하여 논의가 통일되지 않자 실망하여 돌아왔다.⁷⁵⁾ 이 시기 석주의 거처는 위치가 정확하지 않고 일정하지도 않다. 1922년 정월 대보름날 지은 시는 “萬兩河 물가의 한 초당, 임옹 예서 성명을 숨기고 사네.”⁷⁶⁾로 시작한다. 南溝로 이사할 뜻을 비치기도 했으며, 黃崗에서 지은 시도 있다. 실제 거처를 옮겼는지, 남구와 황강이 어딘지는 확정하기 어려운데,⁷⁷⁾ 화전을 떠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5세에 이르러서도 석주는 여전히 노익장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지만, 한편으론 뚜렷하게 노쇠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 시점부터 석주는 은거, 특히 낚시 취미를 빈번하게 내보인다. 남구로 이사하려던 것도 붕어가 많이 난다는 정보 때문이며, 이곳에서 만사를 잊고 낚시하며 보내는 삶을 꿈꾸었다.⁷⁸⁾ 엄자릉의 삶을 화제로 삼고는, 그가 한여름에 양가족옷을 입고 낚시질한 것 자체가 이미 남들의 눈에 띄려는 의도였다고, 그 속내를 의심했다. 만약 그가 도룡이 샷샷 차림이었다면 강호의 누구에게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⁷⁹⁾ 엄자릉에 대한 동경은 정객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말인데, 그의 속뜻을 의심했으니 당시 석주의 지친 심경이 은연중 배어 나온다. 엄자릉을 화제로 삼은 것 자체가 지친 심경의 반증인 셈이다.

1923년 겨울 석주는 거처를 呼蘭으로 옮겼다. 막내 아우 봉희도 잇따라 이

73) 여기에 대해서는 조규태, 「북경 ‘군사통일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0 참고.

74) 여기에 대해서는 신소운, 「석주 이상룡 북경체험의 문학적 형상화와 지향의식」, 『한국민족문화』 77,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송지현, 「『西徙錄』과 『燕薊旅遊日記』에 나타난 석주 이상룡 현실 인식」, 『한국문학연구』 76,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24 참조.

75) 당시 북경의 상황과 석주의 심경은 두 수의 시 「時局紛糾, 整頓無期, 決意歸山, 偶吟一絕」, 「留贈朴容萬·申肅諸友」에 잘 표현되어 있다.

76) 「上元夜」. “萬兩河頭一草堂. 林翁於此姓名藏.” 만량하는 지금 이름은 萬里河이다. 화전 동쪽 25km 지점에서 복류하는 물줄기이다. 청말 淘金王 韓邊水の 활동 무대로 알려져 있다.

77) 南溝와 黃崗은 각각 화전시 동남쪽과 만석시 북쪽에서 검색되는 지명인데, 시의 장소를 현재의 이 지역으로 확정할 근거는 아직 없다.

78) 「南溝問舍」. “聞說南溝產鯽多, 荒田數畝欲搬家. 農言未學長貧可, 越膽空懸宿讐何. 衰穀恫風同病葉, 虛名難網等飛花. 不如萬事都忘却, 手把漁竿浩浩歌.”

79) 「嚴子陵」. “嚴陵難免好名疑, 五月羊裘自標奇. 若着簑衣笠笠去, 江湖滿地孰能知.”

사와, 형제는 호란하 가에 터를 잡고 네 해가량을 이웃하여 산다. 호란에는 당시 적지 않은 한인들이 살고 있었다.⁸⁰⁾ 이사하기 전에 아들 준형이 먼저 가서 집을 물색하고 돌아왔는데, 일인도 관군도 오지 않고 하천에는 물고기가 넘쳤으며, 친구들도 많이 살고 있었다.⁸¹⁾ 자리 잡은 곳은 마을 서북쪽 呼蘭河 가였다. 호란은 화전 서쪽 25km 지점, 磐石과의 중간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반석시에 속해 있다. 마을 가운데 호란하가 남쪽으로 흘러 휘발하로 들어가는데, 이 물줄기가 검색되지 않아 찾는 데 애를 먹었다.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1970년대까지 여기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다. 다음의 시 「郭家廬, 搬寓」는 이사 직후의 감회를 담고 있다.

호란 서북쪽 곱 씨네 가게	呼蘭西北郭家廬
물가의 산에 기댄 작은 집 몇 채	傍水依山屋數椽
장기판에선 초한 전쟁 먼지가 일고	楚漢風塵棋局對
요순의 시절이라 술잔을 권하누나	唐虞日月酒盃禪
이 밖의 세상사는 고수에게 맡겨두고	拋他世事委高手
내 천륜 즐기면서 늙그막을 보내리라	樂我天倫送暮年
향그린 들나물에 쏘가리가 넘쳐나니	野有香蔬溪有鱖
신선의 고을이라 도원을 부러워하라	桃源何必羨神仙

호란의 환경을 석주는 무척 만족스러워했던 듯하다. 시만 놓고 보아서는 태평시절을 만난 듯하다. 아우까지 이웃에 살아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었다. 석주 망명 여정에서 이 호란하는 거의 유일하게 정신적인 안식처 역할을 한 곳이다. 호란하 가의 텃집을 사랑하고 그리워했으며, 호란하에서의 낚시질로 시름을 잊었다. 황학수와 운자를 뽑아 지은 「再拈各賦」에서는 “호란강 변의 작은 띠집, 呼蘭河畔小茅廬”로 시상을 열었다. 「思故鄉」에서는 “서신 하나 대강 써 책임 물리고, 호란에 물러 누워 어초와 어울린다. 途草一書辭責任, 退臥呼蘭混漁

80) 2년 전 호란으로 이주하는 이진산에게 준 시에는, 그곳의 지인들에게 두루 들러 안부를 전해달라는 당부가 들어있다. 「送李震山向呼蘭」, “君須歷訪傳吾語, 留攝沈痾好過年.” 이주한 뒤에는 9명이 시회를 열 수 있을 정도였다. 「扞月望, 曹樵隱相鳳 鄭晦汕寅憲, 來訪, 因與村裏諸老, 伴携手沿河, 逐日團樂. 十八日抵李竹史家, 會者凡九人, 晦汕構示一律, 遂次其韻

81) 「兒變, 自磐石呼蘭求田問舍而回」.

樵.”고 했는데, 이는 1923년 서로군정서의 督辦 직을 사양한 일을 가리킨다.⁸²⁾ 1926년 봄, 상해 임정의 초대 국무령을 사임하고 귀로의 북경에서도, 봄바람 속에서 고향을 느끼는 한편 호란하 가의 이 집을 떠올리며 그리워했다.⁸³⁾

석주의 호란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음으로 크게 의지하던 막내 아우는 1927년 먼저 하얼빈으로 거처를 옮긴다. 이듬해 가을 석주도 반석 북쪽의 玻璃河⁸⁴⁾로 이사했으니, 호란하에서 산 세월은 5년 정도이다. 왜 호란을 떠났는지, 하필 파리하로 갔는지 추정할 단서는 부족하다. 호란에 머무는 동안 석주는 부쩍 노쇠하였으며, 침울한 심정의 은거 지향을 드러낸다. 그렇다고 노지사의 기력이 다 빠진 것은 아니었다. 1923년에는 「滿洲紀事」 16수를 지었고, 1925년에는 상해에 가서 초대 국무령에 취임하였다.

수모 속 월나라 객 샅을 쌓아 누웠었고	蒙羞越客堆薪臥
보국 뜻 대한 사람 장검 깊고 노니노라	報國韓人杖劍遊
물결 밖 대붕 일정 청천 구만 리	泛外鵬程青九萬
선창 가 학의 머리 흰빛 삼천 길	艙間鶴髮白三千

위는 호란에서 상해의 서신을 받은 직후 아우와 주고받은 「滬信後, 尺弟二律以示, 次其韻」 두 수 중 첫 수의 3, 4구이고, 아래는 상해로 가는 배 위에서 지은 「船利渡海」의 5, 6구이다. 아래 시의 7, 8구에서는 “그대들 위험하다 말하지 마오, 호연한 기운 한 번 토해내리라. 傍人莫道多危險, 一吐無妨氣浩然.” 고 하였다. 늙은 천리마가 마구간에 엎드려 천 리 내달림을 생각하듯, 70을 바라보는 열사의 壯心은 아직 식지 않았다.

82) 석주는 독판 직 사양의 심경을 이렇게도 남겨놓았다. 「辭督辦」, “擡舉隆崇督辦名, 毫無權利誘車盈. 今朝解却重重縛, 從比江湖掉臂行.”

83) 「逢春戲吟, 在燕京時」, “봄바람은 바다 동쪽에서 오니, 우리 고향 집을 들러 왔으니. … 호란하의 무너진 집 아취가 넉넉하니. 돌아가면 다시 찾아 하냥 좋이 서성이리라. 春風來自海東方, 歷路應由我故鄉. … 弊屋蘭河饒雅趣, 歸時重訪好徜徉.”

84) 『국역 석주유고』의 고증에 따르면, 파리하는 磐石市 明星鎮 西玻璃村이다. 반석시 북쪽에 있으며, 호란으로부터는 약 70km 떨어져 있다.



[그림 6] 석주가 낚시하며 시름을 달랜 呼蘭河. 지도에 표시되지 않아 찾기에 애를 먹었다.

4. 결어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 김산(1905~1938)은 조국을 잃은 망명 혁명가의 비참한 처지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시베리아에서, 만주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혁명자에게 있어서 나라를 벗어나 가진 인간이라는 것은 나라를 하나도 갖지 못한 인간보다도 훨씬 비참하다. 각국에서 받는 것이라고는 오직 천국행 차표 한 장뿐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인, 중국인, 상해의 영국인과 프랑스인 경찰들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체포된다. 아무 데서도 우리는 보호받지 못한다.⁸⁵⁾

16세의 김산이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가 3개월 단기 수학을 시작한 시점이 1920년 3월이니⁸⁶⁾ 어쩌면 몇 차례 석주와 상면했을지도 모르겠다. 석주는 1932년 5월 舒蘭의 한 농촌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만 21년이 넘는 망명 생활을 견뎌냈다. 국권 상실 후 많은 사람이 망명길에 올라 만주에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낯선 이역에서 다종의 고난을 감내해야 했다. 일제의 교묘한 감시

85) 님 웨일즈, 조우화 역, 『아리랑』, 동녘, 1984, 35쪽.

86) 최용수, 「김산(장지락) 연보-2005년 증보판」, 『황해문화』 49호, 2005년 겨울, 339쪽.

와 추적, 현지의 의심과 배척 사이에서 적응과 생존 자체가 힘겨운 일이었다. 특히 지도자들은 이름을 바꿔가며 신분을 숨기고 수시로 거처를 옮기며 흔적을 지워야 했다. 극심한 추위와 궁핍 속에서 가족을 돌보지 못했으며, 내부 분열로 인한 좌절도 겪어야 했다. 몸과 마음은 나날이 늙고 지쳐갔으며,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석주는 그런 고초를 아래처럼 토로하였다.

해마다 집 옮기니 몸은 지치고 솔한 재물 길 위에 버리는도다	年年遷舍太支離 多少資財路上遺 ⁸⁷⁾
--------------------------------------	-----------------------------------

가재가 새어 나감 미려 바다요 시운이 더디 옴은 수국의 하늘	家貨洩盡尾閭海 時運回遲睡國天 ⁸⁸⁾
--------------------------------------	-----------------------------------

만사를 이룸 없이 몸은 벌써 늙었고 십 년을 씹었어도 쓸개 아직 달렸네	萬事無成身已老 十年長嚼膽猶懸 ⁸⁹⁾
--	-----------------------------------

이런 다중의 어려움 속에서 후손들의 삶은 척박했다. 여기에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의 실패와 분단, 전쟁과 냉전, 중국과의 국교 단절 등의 요인이 더해졌다. 이런 이유로 만주 독립운동의 많은 부분은 멸실, 망각, 왜곡되었다. 많은 세월이 지났고, 이제는 그 일부나마 기억과 구전에 의지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석주는 비교적 풍부한 기록을 남긴 편이다. 이 글은 망명 이후의 시를 대상으로 몇몇 장소의 지리를 고증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가 남아있어 행적의 고증을 시도할 수 있었다. 이에 앞서 몇몇 작품의 편차 오류를 변정하고 망명 시편들을 개관하였다. 망명 기간 석주가 지은 시는 222제 299수이다. 3장에서는 다섯 곳의 지리를 고증하고, 당시 석주의 심경과 주변 정황을 추론하였다. 석주의 시문을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해당 지역의 지리지와 전자지도를 동원하여 정확한 위치와 이동 경로에 대한 가설을

87) 「次金賁西贈李溟坡韻」3(1912)의 1, 2구.

88) 「六十一初度次尺西韻」(1918)의 5, 6구. 미려와 수국은 상상의 장소와 나라이다. 미려는 바다 가운데 물이 빠져 나가는 곳이고(『莊子』, 「秋水」), 수국의 사람들은 한 번 잠들면 50일 만에 한 번씩 일어난다.(『열자』, 「목왕」)

89) 「次韻示南友亨祐」(1925)의 3, 4구.

세웠고, 현지 답사와 탐문으로 가설을 확인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橫道川, 永春院(園), 密什哈, 呼蘭河의 장소성을 논의했다. 輝巴城에는 발길이 닿지 못했다. 석주의 활동 무대로, 나아가 근대 한인 이주사의 현장으로, 이 장소들을 한국학의 차원에서 조명한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자 성과이다.

299수의 시는 한 개인의 은밀한 내면과 생활상을 보여준다. 넓은 의미에서 한 개인의 삶이 다 역사라고 한다면, 시는 그 자체로 가장 정세한 역사이다. 하지만 석주의 시는 개인사의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시편들에는 서간도 이주 한인들의 애환과 생활상, 세계 정세, 중국과 일본의 동향, 독립운동의 정황 등이 다채롭게 담겨 있다. 시의 역사가 아닌, 시로 쓴 역사라는 의미에서 詩史인 셈이다. 지지(地誌)로서의 역할도 작지 않다. 석주의 활동 영역은 그저 '서간도'나 '만주'라는 두세 글자로 덮어씌울 수 없는 광대한 지역이다. 석주는 서간도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서간도의 여러 장소를 옮겨 다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강을 건너고 산을 넘었으며, 그만큼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내면에 무수한 잔물결이 일었다. 이를 되짚어 내지 못하는 역사는 숨결 없는 연대기나 표정 없는 얼굴에 불과하다.

이 글은 역사의 작은 표정과 숨결 몇 개를 되살리려 노력한 결과이다. 이 글로 석주에 대한, 서간도 일대 이주 한인들의 삶에 대한 관심도가 한 계단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후기] 이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석주의 증손 이범중 선생, 임청각 종손 이창수 선생, 국립경국대학교 강윤정 교수 세 분께서 여러 자료를 제공하고 도움 말씀을 주셨다.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 글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깊이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1. 사료

- 『석주유고』, 고려대출판부, 1973.
- 안동독립운동기념관, 『국역 석주유고』(2책), 경인문화사, 2008.
- _____, 『국역 백하일기』, 경인문화사, 2011.
- 국무령이상룡기념사업회, 『국역 동구유고』, 2016.
- 이은숙, 『西間島始終記』, 일조각, 2017.
- 박은식·이종란 옮김, 『왕양명실기』, 한길사, 2010.
- 허 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10.
- 이건승, 『海耕堂收草』, 월인, 2012.
- 이해동, 『만주생활칠십칠년 - 一松 선생 만머느리 李海東 여사 手記 《亂中錄》』, 명지출판사, 1990.
- 吳兆騫, 『秋笈集』, 상해고적출판사, 2009.
- 桓仁滿族自治縣朝鮮族民族史學研究會, 『桓仁朝鮮族 200年』, 2010.
- 『通化縣志』(1927) / 『磐石縣鄉土志』(1937) / 『柳河縣鄉土志』(1907) / 『柳河縣志』(1991)
- 『桓仁縣志』(1928) / 『桓仁縣志』(1996)

2. 논저

- 강운정, 「백하 김대락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 『백범과 민족운동 연구』 7, 백범 김구기념관, 2009.
- _____, 「난세의 지식인 석주 이상룡의 공부」, 『안동학연구』 13, 한국국학진흥원, 2014.
- 김상웅, 『이회영 평전』, 책보세, 2011.
- 김순석, 「석주 이상룡의 현실 인식과 대응방략의 변화」, 『한국민족운동사』 9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 김윤규, 「20세기 초 한시(漢詩)의 문학사적 성격 시론(試論) -석주시(石洲詩)의 경우를 중심으로」, 『동양예학』 17, 동양예학회, 2007.
- 김지은, 「근대 전환기 석주 이상룡의 사상적 변화와 유교개혁론의 근원」, 『국

- 학연구』 46, 한국국학진흥원, 2021.
- 남 웨일즈, 조우화 역, 『아리랑』, 동녘, 1984.
- 민영규, 「강화학 최후의 광경」, 『강화학 최후의 광경』, 우반, 1994.
- 박성준, 「석주 이상룡의 ‘만주기사’ 분석을 통해 본 신흥무관학교의 하급교육 기관 실태」, 『동양고전연구』 67, 동양고전학회, 2017.
- 서광일, 「단애 윤세복과 독립운동」, 『경기사학』 7, 경기사학회, 2003.
-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2.
- 송지현, 「‘西徙錄’과 ‘燕薊旅遊日記’에 나타난 석주 이상룡 현실 인식」, 『한국문학연구』 76,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24.
- 신귀현, 「석주 이상룡 선생의 서양철학 수용과 그의 개혁사상」, 『철학』 63, 한국철학회, 2000.
- 신두환,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의 한시(漢詩) 연구(研究)」, 『한문학논집』 33, 근역한문학회, 2011.
- 신소윤, 「석주 이상룡 한시에 나타난 사물인식의 양상과 그 의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_____, 「석주 이상룡 북경체험의 문학적 형상화와 지향의식」, 『한국민족문화』 77,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 윤순갑·김명하, 「석주 이상룡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국가주의」, 『대한정치학회보』 12(2), 대한정치학회, 2004.
- 이향증, 『나는 임청각의 아들이다』, 디플랜네트워크, 2024.
- 정병석, 「일제강점기 경북 유림의 만주 망명일기에 보이는 현실인식과 대응」, 『민족문화논총』 58,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4.
- 조규태, 「1920년대 재북경 대구, 경북인의 국민당 활동」, 『대구사학』 100, 대구사학회, 2010.
- _____, 「북경 ‘군사통일회의’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0.
- 한상구, 「석주 이상룡의 자유설과 대동사상」, 『한국철학논집』 77, 한국철학사연구회, 2023.
- 호광수, 「석주 이상룡의 망명 한시 텍스트와 상황성」, 『중국인문과학』 31, 중국인문학회, 2005.

_____, 「석주 한시 〈滿洲紀事〉와 〈思故鄉〉의 텍스트성 연구」, 『중국인문과학』 33, 중국인문학회, 2006.

황만기, 「석주 이상룡의 삶과 시문학」, 『대동한문학』 65, 대동한문학회, 2020.

3. 기타 자료

『연합뉴스』, 「60년 만에 귀환한 許薦 선생 두 손자」, 2006.7.18.(<https://v.daum.net/v/20060718173212502>, 검색일: 2025.6.15.)

『파이낸셜뉴스』, 「“도움에 감사”... ‘의병장’ 허위 선생 증손 허 세르게이씨 구미시 방문」, 2023.7.14.(<https://www.fnnews.com/news/202307041134372227>, 검색일: 2025.6.15.)

디지털안동문화대전(<https://www.grandculture.net/andong/dir/GC02401636>, 검색일: 2025.6.18.)

〈Abstract〉

A Study of some Geography in the Exile Poems of Seokju(石洲) Lee Sang-ryong(李相龍)

Lee, Seang-Su · Cui, Chen-Yu · Gang, Dong-U

This article examines some previously unconfirmed geographic details in the exile poems of Seokju Lee Sang-ryong(1858~1932). Seokju left Andong, Gyeongsangbuk-do Province, in January 1911 and went into exile, ending his life on May 12, 1932, in a rural village in Shulan, Jilin Province, China. During this period, he worked for the independence of his homeland and the settlement of Korean immigrants, producing a considerable number of Sino-Korean poetry and prose in the process. In chapter 2 provides an overview of his exile poems. After correcting editing errors, the exile poems were reclassified as 222 titles and 299 poems. In chapters 3 to 7, examine the geography and location of five place names - Hoengdocheon(橫道川, Héngdào chuān), Yeongchunwon(永春院, Yǒngchūnyuàn), Hwipaseong(輝巴城, Huībāchéng), Milsiphap(密什哈, Mìshíhā), and Horanha(呼蘭河, Hūlánhé) - and examine Seokju's activities and state of mind as reflected in his poetry. This work is significant for several reasons. First, it meticulously and three-dimensionally reconstructs a portion of a historical figure's life. Second, it broadens the scope of literary history by illuminating a portion of the very broad spectrum of Korean literature between the 1910s and the early 1930s. Third, it vividly resurrects some of the darker side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Manchuria during the same period. This allows several regions in Northeast China to be established as sites of Korean literature and Korean history. Seokju traveled extensively for over 20 years, but only a fraction of his travels are recorded. The remainder not covered in this article is left for future research.

* Key Words: Lee Sang-ryong, Exile Poems, Hoengdocheon(橫道川, Hengdaochuān),
Geographical Verification, Seokju Yugo(石洲遺稿)

· 논문투고일: 2026년 2월 9일 · 심사완료일: 2026년 3월 12일 · 게재결정일: 2026년 3월 19일